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요한 14,15-17)

〈삼위일체〉, Francesco Cairo

[제1독서]사도 8,5-8.14-17

[화답송] 시편 66(65),1-3ㄱ나,4-5.6-7ㄱ.16과 20
(◎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이야,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1베드 3,15-18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복음] 요한 14,15-21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304] 보아라 우리의 대사제
 - 봉헌성가: [218] 주여 당신 종이 여기
[219] 주여 몸과 맘 다바치오니
 - 성체성가: [164] 떡과 술의 형상에
[177] 만나를 먹은 이스라엘 백성
 - 파견성가: [83] 주 찬미하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16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17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18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19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21 내 계명을 받아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Jesus said to his disciples:

“If you love me, you will keep my commandments.

And I will ask the Father, and he will give you another Advocate to be with you always,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accept, because it neither sees nor knows him.

But you know him, because he remains with you, and will be in you.

I will not leave you orphans; I will come to you.

In a little while the world will no longer see me, but you will see me, because I live and you will live.

On that day you will realize that I am in my Father and you are in me and I in you.

Whoever has my commandments and observes them is the one who loves me.

And whoever loves me will be loved by my Father, and I will love him and reveal myself to him.”

묵상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과거에는 ‘성령’을 ‘성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초월적 신의 의미보다는 ‘바람, 숨결, 기운’과 같은 영의 활동이 성경에서 증언하는 보호자, 협력자로서 우리 곁에 숨결처럼 머무시는 예수님의 영을 적절하게 표현하기에 지금은 ‘성령’으로 부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이시며 예수님께서 보내 주신 하느님의 살아 계신 영이십니다.

초기 제자들의 복음 선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병자들의 치유와 같은 표징들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징을 본 것만으로는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말씀은, 표징을 보고 그저 감탄하고 놀라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람들이 내적인 회심과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용기를 성령께서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성령의 도우심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지닌 “희망에

관하여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나 준비”할 수 있는 증언의 힘은, 지혜의 성령께 의탁하고, 기도의 응답에 따라 세상의 거짓과 위선을 식별해 내고, 예수님 말씀에 담긴 진리와 선을 담대히 따른 체험에서 나옵니다.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결코 쉽게 믿음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령을 개인적인 은사의 원리로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별 신자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에, 누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도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갈등을 일으킨다면, 그 사람의 은사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거짓 은사라고 가르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갈라 5,22-23 참조). 그 밖의 것들은 악에서 나온 것임을 명심합니다.

(송용민 사도 요한 신부)



하상주보는 가톨릭 신자라면 꼭 알아야 할 가톨릭 교회 · 성경 상식을 연재합니다. 연재 내용은 “예비신자 궁금증 105가지” <줄리아 크노프 글, 폴프 분제 그림, 조규홍 옮김, 가톨릭출판사>에서 발췌되며, 매 주일 미사 후 백인현 주임 신부님과 성원경 보좌 신부님께서 알기 쉽게 해설해 주십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애독을 부탁드립니다.



Q 성경에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탄생은 ?

마태오 복음사가와 루카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이 중 루카 복음사가가 전해주는 이야기가 더 잘 알려져 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으로 이스라엘인들은 모두 호적을 새로 등록해야 했는데, 요셉 성인과 성모님도 이를 위해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때 성모님은 예수님을 잉태하고 있었다. 그들은 겨우 마구간 하나를 찾아 몸을 피했지만,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한다. 예수님은 말들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구유에 깔린 짚 위에서 잠드셨다. 당시 들에 살면서 양 떼를 지키는 목동들에게 하늘에서 천사들이 갑자기 나타나 ‘오늘 이스라엘의 구원자, 주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고 알려 주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평화를 가져오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동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와 구유에 엎드려 절하고 기도드렸다.

마태오 복음사가는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났는데 그 별을 보고 멀리 동방에서 ‘세 박사’가 찾아왔다고 전한다. 이 이야기에는 세상 저편 먼 곳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경배드린다는 뜻이 담겨 있다. 별을 보고 찾아온 세 동방 박사는 아기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알아보았던 것이다.

루카 복음사가와 마태오 복음사가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적 사실 그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알려 주고자 하였다(마태 1,18-25; 루카 1,26-28). 두 복음사가는 요셉 성인이 예수님의 양아버지라고 설명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영원한 분이시니 그분의 아드님도 영원하실 것이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셨다. 요한복음사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노래한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에 왔다.” (요한 1,9)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요한 1,14) 여기서 ‘말씀’은 영원으로 태어나신 하느님의 아드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고백하면, 하느님께서 그 사람 안에 머무르시고 그 사람도 하느님 안에 머무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 4,15-16)

예수님은 누구실까?

성경은 하느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고 증언한다. 사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느님의 아드님으로 이해해야 한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보고 느끼도록 도와주셨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하느님을 가장 잘 알아보도록 언제나 최선을 길을 택하셨다. 하느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 결코 아니시다.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누구신지 알려 주려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는 평화와 정의가 넘친다고 선포하셨다.



5월 단체장 회의

5월 단체장 회의가 지난 14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안드레아) 주임신부는 “본당 내 여러 행사에 각 신심 활동단체가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기쁜 마음으로 희생하고 자발적으로 양보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실천’이라며 가까운 곳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 실천의 예로, 현행중인 셔틀버스가 비용에 비해 이용하는 신자 수가 매우 적은 실정인 만큼 신자들이 셔틀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고 전했다.

6월 18일(일)에 있을 호도 한마당 행사에 각 단체와 신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2017·18년도 단체별 예산 편성안 및 활동 계획서를 발표했다.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 100주년 **일일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참가자 김만식 재권 요셉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에 성모님이 어린 세 목동에게 발현하셨다. 그로부터 100년 후 2017년 5월 13일(토요일) 성 정 바오로 교우 54명은 굵은 빗줄기를 뚫고 이른 새벽 5시에 성당 뒷마당을 출발하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본부가 있는 뉴저지를 향해 출발했다. 비는 계속 오고 있었지만 순례 참가자들은 성모님 발현 100주년을 기념하는 미사에 참여한다는 설렘과 뉴저지 본부에 도착하면 비가 그칠지도 모른다는 기대 속에 환한 얼굴과 들뜬 마음으로 순례를 시작하였다.



버스 안에서 첫 순서로 삼종기도와 아침 기도를 하기 전 순례단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한 것은 백인현 주임 신부님이 보내신 이메일이었다. 신부님께서는 “성지순례가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고 격려해주시고 순례 일정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주신 것이었다.

백 신부님의 메시지에 한껏 고무된 순례단은 삼종 기도과 아침 기도, 묵주기도(환희와 빛의 신비)를 하고 오전 11시 쯤 파티마 본부에 가까이 가니 입구부터 100주년 기념 행사에 참여하러 온 버스들과 자동차들로 길이 막혀 있었다. 순례단은 빗속에서 진행될 행사와 미사 참여를 위해 단단히 옷을 챙겨 입고 판초를 두르고 우산을 든 채 본 행사가 열리는 야외 성전으로 올라갔다. 성전 주위에는 이미 인근 뉴욕,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등에서 온 다민족 다인종의 순례자들이 묵주 기도 행렬로 시작되는 100주년 기념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2시에 예정되어 있었던, 성모님과 함께 성모 동산을 행렬하며 드리는 묵주의 기도는 비가 내리고 있었기에 야외 성전 안에서 진행되었고 그 후 앤드류 신부님 (Fr. Andrew Apostoli)의 특강으로 이어졌다. 앤드류 신부님은 이 땅의 평화, 죄인들의 회개, 가정의 성화를 위해 묵주 기도를 5단 이상 매일 바칠 것을 강조하셨다. 또한, 이 자리는 지난 100년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100년 후를 생각하며 파티마의 성모님 메시지를 널리 알리기를 결심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오후 1시가 되어 메투첸 교구 (Diocese of Metuchen)의 야고보 주교님 (Bishop James F Checchio)께서 100주년 기념 미사를 집전하셨다. 강론 중에 성모님이 1917년 3명의 목동들에게 요구하신 '기도', '희생', 그리고 '보속'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계속해서 실천해야 할 과제임을 상기시켜 주셨다. 특별히 성모님은 우리의 어머니로서, 자녀들이 불평등 (Injustice)에 의해 십자가를 피하고 받아 들이지 않을 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할 때 겪고 있는 고통 등에 대해 더 고통스러워하고 계시다고 하셨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가 성모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모인 것이며, 성모님이 기뻐하시고 계실 것이라며 우리는 너무 많이 감사할 것을 가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미사의 마무리를 장식하는 손수건을 흔들며 성모님께 작별을 고하는 행렬도 계속 내리는 비와 바람 때문에 취소되어 아쉬운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포르투갈 파티마의 경당을 본떠 만든 카펠리나에 들렀다. 각자 기도와 초 봉헌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바치기 위해 14처가 있는 오솔길로 옮겨 십자가의 길을 바쳤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묵주기도 (고통과 영광의 신비)를 바치고 저녁기도를 함께 바쳤다. 비 속에서도 서로 배려하며 짜증내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번 성지순례를 무사히 마침에 서로에게 박수를 쳐주었으며 성모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부터 받은 축복과 은총 등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비록 하루의 모든 과정들이 비 속에서 진행되었지만 순례단 모두는 이러한 시간들이 오히려 성모님께 더욱 기도하고 희생하며, 또한 보속으로 바칠 수 있는 기회였고 잊지 못할 성지순례임을 고백했다.

파티마 성모 발현 증인 100년 만에 성인 선포



파티마 성모 발현의 증인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 남매가 성모 마리아를 만난 지 꼭 100년 만에 성인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5월 13일 포르투갈 파티마 성모 발현지에서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 남매를 성인으로 선포했다. 성모 발현 100주년에 맞춰 열린 시성식에는 세계 각국에서 50만 명이 참석했다. 교황은 남매를 성인으로 선포한 뒤 금색 십자가 두 개에 담긴 성인 남매의 유해를

성모상 앞에 안치하고 기도했다.

교황은 “성모 발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분의 메시지”라며 “파티마 성모 메시지는 신 없는(godless) 세상을 획책하고, 하느님 피조물을 모독하려는 이들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는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에게 의지하는 아이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파티마 성모가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말했다.

성 프란치스코와 히야친타는 사촌누이 루치아와 함께 1917년 5월 13일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산자락에서 ‘흰옷 입은 부인’을 처음 만났다. 이후 성모가 5차례 더 발현하는 동안 성모의 메시지를 전하고, 발현 사실을 은폐하려는 지역 관리들의 협박에 굴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언했다.

당시 프란치스코는 9살, 히야친타는 7살이었다. 이로써 남매는 순교하지 않고 성인 반열에 오른 최연소 성인이 됐다. 남매는 2년 뒤 유럽 전역을 휩쓴 유행성 독감으로 세상을 떠났다. 루치아는 봉쇄수녀회 수도자로 살면서 ‘파티마 3가지 비밀’을 증언하고 2005년 97세로 선종했다. 성모의 예언 3가지 비밀은 소련 공산주의 출현과 세계대전 발발, 교회(교황)의 환난 등에 관한 것이다.

“성모성월이요 제일 좋은 시절 사랑하올 어머니 찬미하오리다. 우리 어머니 함께 주를 사랑하니 영원하오신 천주 뵈게 하소서..”



5월 소공동체 모임

지난 5월 13일에 소공동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각자의 신앙 생활을 돌아보며 사랑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양정용 요한/헬레나 부부덕에서 가진 소공동체 모임에 13가정 25명의 구역식구들이 참석했습니다. 구역의 새식구로 손범희 세례자 요한 형제와 박예선 비르짓다 자매가 스프링필드 구역에서 방문하였습니다. 참석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복음 말씀을 묵상하며 굳은 신앙과 사랑의 실천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고 다짐하며 서로의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라우든 구역1반

리사 크랜츠 자매덕에서 열린 소공동체 모임에는 다섯 가정이 참석했습니다. 건진성사를 받은 양소미 베로니카 자매를 축하하며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령이 충만한 체험들을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밖에 장터 한마당 준비와 6월 소공동체 모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라우든 구역 2반

장일 안드레아/미연 아네스 부부덕에서 열린 소공동체 모임에는 11가정 28명의 구역식구들이 모여 복음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장터 한마당 준비물 및 추가 사항을 점검했으며 6월 구역 미사 필요 사항을 점검하고, 각 가정의 소식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 구인 : Springfield에 위치한 방 세 놓습니다(학생, 여자분 환영) 문의 : Mrs. Lee (703) 795-3034
- ※ 피아노(중고) 상태 양호, 전자제품 등 가져가실 분 문의 : 전 세실리아 (703) 209-1752
- ※ 구인 : 페인트 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분 구합니다. 문의 : 신 데레사 (703) 774-8594

(가톨릭신문)



Fatima Visionaries, Francisco and Jacinta have officially been declared saints!

Pope Francis to proclaim Fatima visionaries saints during Portugal trip



Pope Francis on Saturday, May 13, 2017, officially declared Francisco and Jacinta Marto saints of the Catholic Church in front of hundreds of thousands of pilgrims at Fatima, Portugal – teaching us that even young children can become saints.

“For the honor of the Blessed Trinity, the exaltation of the Catholic faith and the increase of the Christian life, by the authority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of the Holy Apostles Peter and Paul, and our own, after due deliberation and frequent prayer for divine assistance, and having sought the counsel of many of our brother Bishops, we declare and define Blessed Francisco Marto and Jacinta Marto to be saints,” Pope Francis exclaimed May 13 as the crowd roared with applause.

“We enroll them among the Saints, decreeing that they are to be venerated as such by the whole Church.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Pope Francis presided over their canonization Mass during his two-day pilgrimage to Fatima, Portugal May 12-13 to take part in celebrations for the 100th anniversary of the appearance of Our Lady of Fatima.

The brother and sister, Francisco and Jacinta, who tended to their families’ sheep with their cousin Lucia Santo in the fields of Fatima, witnessed the apparitions of Mary, now commonly known as Our Lady of Fati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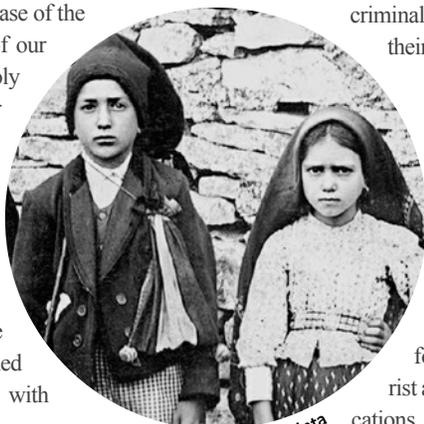
In her message to the children, Mary brought with her requests for conversion, prayer (particularly the recitation of the rosary), sacrifices on behalf of sinners, and a three-part secret regarding the fate of the world.

The children followed Mary’s requests, praying often, giving their lunch to beggars and going without food themselves. They offered up their daily crosses and even refrained from drinking water on hot days.

With anti-Catholic sentiment very prevalent in the country, the mayor in the district of Fatima had grown suspicious of the growingly popular apparitions, and had unsuccessfully tried to get the children to renounce their story.

Wanting to stop the children from seeing the fourth apparition, Artur Santos, an apostate Catholic and high Mason who was the local mayor, devised a ruse to kidnap the children before the scheduled day of her appearance.

Despite bribes, threats of death by burning oil, and threatening to lock them in a cell with criminals, the children never recanted their story.



▲ Francisco and Jacinta

Convicted by Mary’s requests and the vision of hell, both children lived lives of prayer and penance after the apparitions, offering themselves for sinners as Mary had asked. Francisco was known for his devotion to the Eucharist and his strict physical mortifications, while Jacinta was especially known for having a heart for the poor and the suffering.

Both children fell victim to the influenza epidemic of 1918 that swept through Europe. In October 1918, Mary again appeared to the sick siblings and promised to take them to heaven soon. On April 3, 1919, Francisco declined hospital treatment for influenza and died the next day.

Jacinta was given hospital treatment in hopes of prolonging her life, but she knew that she would soon join Francisco in heaven. On February 19, 1920, Jacinta asked the hospital chaplain who heard her confession to bring her Holy Communion and administer the last rites, because she was going to die “the next night.” But the priest said that her condition was not that serious and that he would return the next day. The next day Jacinta was found dead – she had died in her sleep.

Pope John Paul II beatified Francisco and Jacinta May 13, 2000, on the 83rd anniversary of the first apparition of Our Lady at Fatima. Both under 12 years old, they were the youngest non-martyrs to be beatified in the history of the Church.

Sister Lucia, the third visionary, lived much longer, dying in 2005 at the age of 97. The Church is currently examining documents and collecting testimonies for her beatification cause.

<Fatima, Portugal, May 13, 2017 CNA/EWTN News>

POPE'S PRAYER TO THE BLESSED VIRGIN OF FATIMA

*The Holy Father:
Hail Holy Queen,
Blessed Virgin of Fatima,
Lady of Immaculate Heart,
our refuge and our way to God!
As a pilgrim of the Light that comes to us from
your hands, I give thanks to God the Father,
who in every time and place is at work in
human history;
As a pilgrim of the Peace that, in this place,
you proclaim,
I give praise to Christ, our peace, and I implore
for the world concord among all peoples;
As a pilgrim of the Hope that the Spirit
awakens,
I come as a prophet and messenger to wash the
feet of all, at the same table that unites us.
.....
And at last, enveloped in the Light that comes
from your hands,
I will give glory to the Lord forever and ever.
Amen.*

No Sunday School Class

• May 28 (Memorial Day Holiday)

원주교구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의
본당 방문을 환영합니다!
주교님 미사 집전: 5월 21일(일) 오전 10시 미사

1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님과 함께 하는
2017년 친교의 장터 한마당

- 일시: 5월 21일(일) 10시 미사 후
- 장소: 본당 뒤 주차장
- 각 구역별 음식 판매와 율놀이 및 흥겨운 게임 등이 진행될 장터 한마당에 모두 참석하시어 사랑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2 하상회/안나회 모임

- 일시: 5월 21일(일), 친교의 장터

3 바오로 정기총회

- 일시: 5월 21일(일) 오후 6시(친교실)
- 문의: 이석근 바오로(703) 703-1932

4 울뜨레아 정기모임

- 일시: 5월 26일(금) 오후 8시(A-1,2,3)
- 새로 탄생한 꾸르실리스파의 나눔이 있습니다.

5 요한회(50대) 월례회의

- 일시: 5월 26일(금) 오후 8시(B-4)
- 문의: 배석범 알베르도 (703)477-3491

6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5월 28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7 K of C 정기모임

- 일시: 5월 28일(일) 11:30 (A-1,2)

8 복사단 모임

- 일시: 5월 28일(일) 12:40(B-1,2)

9 꾸르실리오 지도 신부님배 골프대회

- 일시: 6월 4일(일) 오후 1시
- 대상: 전 신자
- 장소: Red Gate Golf Course
- 문의: 광노덕 (703) 608-9664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21일(일)	부활 제6주일	장터한마당(오전 11:20-오후 2시, 본당 뒤 주차장), 주일학교 없음, 학생미사(오전 10시, 친교실), 바오로 정기총회(오후 6시, 친교실)
22일(월)	부활 제6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23일(화)	부활 제6주간	하상성인학교(오전 9:30, 하상관, 친교실), 레지오 마리아(오후 8시, 친교실), 성령기도회(오후 8시, 도서실)
24일(수)	부활 제6주간	레지오 마리아(오전 9:30, 친교실)
25일(목)	부활 제6주간	아침미사(오전 6:00, 성당)
26일(금)	성 필립보 네리 사제 기념일	CLC 오후 8시, 꾸르실리오 모임(오후 8시, A-1,2,3), 요한회(오후 8시, B-4), 바오로 자매모임(오후 8시)
27일(토)	부활 제6주간	아침미사(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9:30, 친교실)
28일(일)	주님 승천 대축일	K of C 모임(11:30, A-1,2), 꾸리아 월례회의(11:40, 하상관 B-4,5), 주일학교 휴교, 복사단 모임(12:40, B-1,2), 제 9회 미동중부 성령대회(오후 1:30, 워싱턴 성당)

10 5월 성물부 세일

- 5월 성모성월을 맞이하여 성물부에서 20% 세일하니 많은 애용 바랍니다.

11 생태마을 청국장가루 주문 접수

- 신청: 성모회, 장에디타 (703) 973-7159

12 메모리얼 데이(Memorial Day) 미사

- 일시: 5월 29일(월) 오전 11시/ Fr. John M. O'Donohue.
- 장소: Fairfax Memorial Park

13 하상 성인학교 휴강 안내

- Memorial Day를 전후로 휴강합니다.
- 휴강일: 5월 26일(금) / 5월 30일(화)
- 문의: 김명희 올리아나 (703)217-2775

14 이스라엘 성지순례(프란치스코회 주최)

- 일시: 2017년 11월 27일(월)-12월 10일(일)까지 (선착순 10명)
- 비용: \$3,900(Deposit \$1,000)
- 인솔 신부님: 조기영(안드레아) 프란치스코 수도회
- 문의: 한기남 데레사 (703)425-9445, (703)674-6081

선교 방송 시간이 6월 1일(목)부터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채널은 변동 없음.)

- 목요일 오후 5시 → 변경 없음
- 금요일 저녁 11시에서 → 저녁 8시로 변경
- 일요일 자정 12시에서 → 아침 6시로 변경

2017년 제9회 미 동중부
성령대회

성령은사 쇄신운동 50주년
파티마 성모님 발현 100주년

“너희 안에 나의 거처를 마련하여라.”
(묵시록 21,3)

장 소 : 김 태광 아우구스티노 신부 (필리포 수도회)
일 시 : 5월 28일(주일) 1:30 pm - 9:00 pm
29일(월) 9:00 am - 5:00 pm
(Memorial weekend)
장 소 : 워싱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Korean Catholic Church
17615 Old Baltimore Rd. Olney, MD 20832
회 비 : \$30.00 (5월 14일까지) / \$40.00 (15일 이후)
문 의 : 미 동중부 성령채신 봉사자 협의회 (443-717-0886)
신 청 : 각 본당 성령기도회장

* 2차 헌금 *

이번 주일은 알링톤 교구 은퇴사제를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 필사 5년 계획

-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성경(구약과 신약) 필사에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숙한 신앙인”을 지향하며 기획된 이번 필사를 통해 기쁨과 은총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 성경필사는 “2017 성경필사 주일 일정표”를 참조하십시오.
- **부활 제6주일 : 탈출 10-15, 마태 19-20**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5월 25일 (목) 오후 5:00-6:00
5월 26일 (금) 저녁 11:00-12:00
5월 28일 (일) 자정 12:00-1:00

- 뉴스 : 가톨릭 뉴스 종합
- 특강 : 서양문화의 어머니 그리스도교. 박승찬 교수(12서 로마 제국의 몰락과 동방교회의 분리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5월 14일 (부활 제5주일)

주일헌금	\$ 7,226.25
교무금	\$ 6,575.00
교무금(신용카드)	\$ 4,500.00
특별헌금	\$ 930.00
2차 헌금	\$ 2,565.81
합계	\$ 21,797.06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요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윤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종분(루시아), 정맹금(데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선(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네스), Dan Cho, 전원호(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토),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박용재(토마스) 이숙(소화 데레사), 백유미(세실리아), 김동분(아가다), 김경호(사도요한), 오인균(바오로), 김영식(토마스)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윤(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슬(루시아), 이재운(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또), 손범기(펠릭스), 윤복참(프란치스코),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승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권범수(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엘(미카엘라), 예스터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김승겸(안드레아) 임철민(요셉), 김성우(비오), 박준서(Justin), 박대연(엘리아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 혼인공시

◆ 송화종 씨 자 : 송동규 (토마스)

◆ 김기선 씨 녀 : 김수정 (수잔)

• 일시 : 2017년 6월 3일(토) 오후 3시

• 장소 :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 이 두 사람이 혼인해서는 안될 어떤 사정을 아시는 분은 주임사제나 교구직권자에게 알려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뉴스킨,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석범(알베르토)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의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협)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현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베드로) 703-675-8009	베스트 사인 간판 / 네온 / 박스 / 현수막 전광판 / 배너 / 메뉴판 703-887-1515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김연철(월리암)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티노한 703-855-8710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오(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신애(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마르코) 센터빌, 찬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마태오 홍 종합보험 메디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이은영(요셉피나)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크리스) D.D.S. 703-726-8804	와니 건축 In & Out 핸디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빈센트) 571-331-6811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중미반점 애난데일 예촌 옆 임형석(가브리엘) 703-658-2030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원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에스터) 571-215-3232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 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은퇴 계획, 건강, 메디케어 자동차, 주택, 사업체 703-649-2110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Kim's Auto Service 자동차 정비 703-425-4600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시몽사진 Professional Photography visit: simonleestudio.com 50% off Grand opening 703-338-4665(이창재)	SEM Education Science, English, Math SAT, AP, Subject Test 703-965-8530(Selina)	웨딩사진 전문 www.soowonlee.com 이 클라우디아 703-785-0900	Folds & Crafts 종이접기, 한지공예(성인, 어린이) 강사반, 취미반, 작품판매 한영란(소피아) 703-937-7878

성사 · 교리 · 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 짝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6개월)
 · 주일: 11:40-12:40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요셉)